

前・現職 警友들의
新年메시지

丙戌年 함께 만들어 갑시다

警友들과 함께

이 규 식 (중앙회 기획조정위원장)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희망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달려와 보니 그 목적은 보이지 않고 과정만 뒤돌아 보일 뿐 인생은 바로 양파와 같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백발과 주름살, 지팡이와 휠체어까지도 그것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요 또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60년대 초통볼 밑에서 보리밥 겨우 먹던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잘 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의 한강기적을 일구어낸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병술년이 왔습니다.

세월과 함께 누구나 가고 올 노년의 길에서도 우리들의 몫은 분명히 있음을 오늘이 순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0만 개개인 각자의 경유기보다도 경유회원의 자격으로 경유회 공조직을 통하여

경우들과 함께 걸어가며, 더 크고 더 보람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에 침묵하지 말고 결연히 앞장서며 독자수사권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현직 일손이 부족한 공간을 메워주는 일에서부터 갖가지 사회 봉사활동 및 경우들과 상부상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경우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가 몸담았던 한국경찰,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의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낙엽이 썩어서 밑거름이 되고 새싹을 피우듯이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 주변의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며 그렇게 당당하게 아름다운 노을을 장식해 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새해는 그림이나 글씨, 춤과 노래도 해보고 인터넷도 들여다보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스로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며

김 정 원 (울산광역시 경우회장)



그렇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2가지로, 그 하나는 주민등록의 나이이고, 또 하나는 자기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이이지요!

우리들은 조국광복과 더불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여 지난 반세기동안 전쟁과 분단, 사회적 혼란과 가난, 정치적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명감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치안질서는 물론 조국 근대화 과업달성에도 일익의 역군으로 열심히 헌신봉직하다 물러난 경찰인의 한 사람입니다.

“물러남”이란 쓸쓸하고 아쉽고 버려지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떳떳하고 당당하며 즐거운 것입니다.

年年歲歲花相似(해마다 피는 꽃은 비슷하건만) 歲歲年年人不同(한해 한해 갈수록 사람은 같지 않구나!)

작금의 우리 사회는 자율과 개방, 개혁과 통합, 남북관계개선의 명분 아래 때로는 법과 질서,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수호냉전세력으로 때도 당하기도 하는 혼돈스러움에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념대립의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태마저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경찰인들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보존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의연히 분연의 감각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코 조국은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丙戌年 한해도 경우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현직경찰을 측면 지원하고 경우회 활성화 하는 일에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이 태 기 (警友 킥동호회)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줄어 들었다고 생 각하니 좀 허전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나이란 오직 숫자에 불과하다고 '새뮤얼 일만'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20의 청년보다 60 이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이란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 등 마음의 상태를 두고 판단할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60세만 되어도 장수한 기념으로 회갑상을 받아야 했고, 외출도 삼가하며 안방으로 은퇴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우회 회원님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제일 신체 건강하고 조국애와 민족애가 투철한 바른 사상의 소유자임을 이미 검증 받은 분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을 누리

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나이를 먹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생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근면 성실해야겠다고 마음먹어 봅니다. 매일 친구들을 만나 등산, 관광, 운동도 다니고 경조사도 빠짐 없이 참석하려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인터넷 회원들에게 계속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말입니다.

다음 노측다욕(老側多慾)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쓸데없이 노욕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옛날 성현들도 이 노욕(老慾)을 경계하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나 또한 절대 욕심부리지 않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칭찬을 받으려 신경을 쓰기보다 상대방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끼리는 물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상대방을 칭찬해 줘야 총화 단결을 이뤄 마음이 좁아지지않게 말입니다.

새해에는 경우회 회장님을 비롯 120만 경우회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가정을 행복히 행운이 미소 짓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警察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길

치안감 한 진 희 (서울경찰청 차장)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늘 벅찬 기대와 설레임을 안겨주지만 특히 2006년은 우리경찰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한 해입니다.

광복후 혼란기에 대동한 우리 경찰은 지난 60년 동안 일부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과오들을 뒤로 하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발전하여, 외국경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경찰의 60년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경찰력하에서 갈수록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치안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경찰의 활동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찰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상

호작용을 통해 경찰과 국민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단한 혁신을 통해 경찰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제거하여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키고 국민의 만족이 우리의 보람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자나 도시빈민과 같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감싸안는 따뜻한 감성치안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들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유(警友)선배님들도 경찰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과 국민간의 가교역할을 맡아주시고 우리 경찰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더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前・現職 동료들의 단합 기대

총경 강 성 공 (서울북부경찰서장)



지난 한 해 우리 경찰은 60년 장년(長年) 경찰을 긴장과 숨가쁨 속에서 기쁨과 아쉬움을 맛보며 바쁘게 보냈고, 이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해를 기대와 겸허함으로 정중하게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해는 청장님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적무에 걸맞는 복지'라는 철학과 지휘 아래 온 경찰 및 경우 선배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찰 60년의 숙원사업들을 추진, 「수사구조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사회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국민 대부분이 경찰의 입장을 이해·지지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위까지 급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험직무 순직시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등 경찰 창설 이래 가장 굵직한 일들을 최단기간 내에 처리, 「일할 맛 나는 경찰」을 만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구조개혁」등 우리가 반드시 완결시켜야 하는 숙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丙戌年 개(犬)의 해」는 지난 해에 다진 초석들을 기반으로 더욱 정진해야 하는 새로운 60년의 첫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하고, 자체사고가 없으며, 경찰관 개개인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조직을 내실화시키는 한편,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의지하고 싶어 하는 믿음직스러운 경찰로 거듭나야 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경찰은 물론 경우 선배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니다.

丙戌年 새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전·현직 동료들의 혼연 일체된 단합을 다시 한번 다짐 합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터

경감 임 경 수 (충남 보령췌 경비교통과장)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직장상사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노력했으나, 잘한 점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와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개의 감독자는 직원을 위해 군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분류의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좀더 유연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 자신과 현장에 변화를 주는 감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승진되어 충청의 고창 충남으로 발령받아 근무한지도 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직장상사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노력했으나, 잘한 점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와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개의 감독자는 직원을 위해 군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분류의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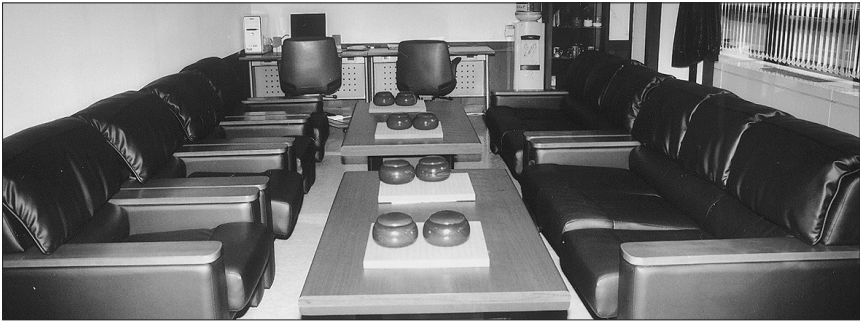
새해에는 좀더 유연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 자신과 현장에 변화를 주는 감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警友들의 休息處 「사랑방」으로 초대합니다

쉽게 찾아와 정담을 나누며 부담없이 휴식과 오락(바둑, 장기, 컴퓨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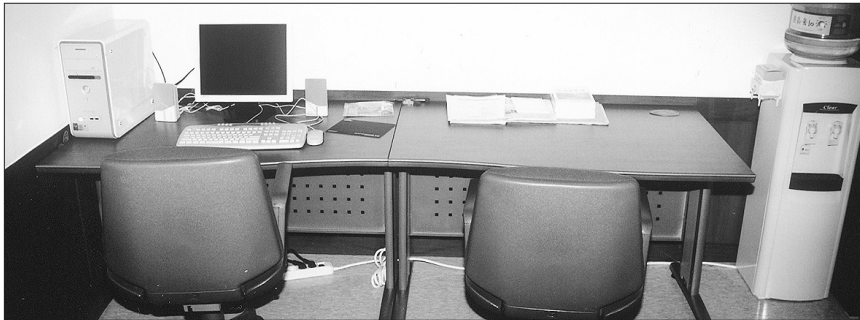
소그룹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용 탁자



바둑과 장기도 두고, TV를 볼 수 있는 휴식공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탁



인터넷 검색 컴퓨터



차를 마실 수 있는 음료대